

# 한국통신불자회 전국연합회 닷 올린다

### 이달중 분당 새청사 법당에 사무실 마련 18개지회 10월 18일 모임서 구체 논의

한국통신불자회(회장 김문수)가 최근 경기도 분당 신청사에 법당을 마련하고 전국연합회 결성의 닷을 올렸다. 10월 18일에는 대전에서 전국조직 결성을 모색하는 연합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불자회는 현재 본사, 서울 혜화동전화국, 서울번외내국, 북전주, 장유, 군산, 대구진여회 산하 7개 전화국, 대전, 충남본부, 청주, 부산전화국 등 전국 18개 지회가 활동중이며 경주전화국은 결성중에 있다.

10개 지역본부 4백여 전화국 6만 5천여 직원에게 법음을 전파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22일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출범한 본사불자회는 연초부터 전국전화국불자회 임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올해 안에 전국연합회를 결성키로 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지방창립작업에 박차를 가해온 한국통신불자회는 올해내 전국조직을 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지역은 한국통신 본사불자회를 중심으로 혜화전화국불자회와 서울번외내국불자회가 합동으로 남양주 봉선사에서 합동법회를 갖고 화합을 다지는 등 지역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조직화에 중심이 돼 힘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달중에 분당 신청사에 자체법당을 마련하여 연합회 본부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본부의 경우 8월 1일 금산사에서 20여명이 참가 전북지부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빠른 시일내 전북지부를 발족키로 하고 회장에 홍득표부장(전북본부 마케팅국)을 선출했다. 홍회장은 "기존의 3개 전화국 불자회를 주축으로

전주 부안 순창등 전북지역 18개 전화국에 불자회를 창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진여회도 전상운(대구전화국 건설국) 신임회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강화에 힘쓰고 있다. 진여회는 조직에 포교국을 두고 원래 불자회가 운영됐던 전화국부터 재창립작업을 하고 있다.

김문수회장은 "전국연합을 구성키 위해 본사불자회의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며 "이미 결성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불자회와 연대하여 불교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opia.com)

### 우리 모임에선

**국회보좌진 용문사 순례**  
국회보좌진불자회(회장 정병국)는 27일 양평 용문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갖는다.  
국회보좌진불자회 회원 및 가족 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이날 법회에서는 용문사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02)784-3860

**한일은행불자회 창립 12돌**  
한일은행불교신학회(회장 한우진) 창립12주년 기념법회가 26일 오후 4시30분 한일은행 본점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법회는 금융단불자회 제20회 합동법회도 함께 열리며 봉선사 주지 밀운스님이 법문을 예정이다. (02)553-1801



### 동산스님 문집 봉정식

동산대종사문집편찬위원회(위원장 덕명)는 1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문집 봉정식을 가졌다.

이날 편찬위원장 덕명스님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문집 간행이 동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청정수행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강암 회주 벽파스님, 범어사주지스님 오스님을 비롯한 문도 2백여명이 동참한 봉정식에 이어 문도 회의를 갖고 범어사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 동작구민 위한 안녕기원법회

동작구불교연합회(회장 해철스님)는 11일 서울 동작구 대강당에서 동작구민 안녕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해철스님은 "어려운 때일수록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연합회 법주 혜성스님, 고문 아용스님을 비롯하여 만화(미타사) 도각(사자암) 법흥(법흥사) 법관(관음정사) 해일(정공사) 월산(기원정사)스님과 김우중 동작구청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했다.



### 정태혁박사 논총집 '인도철학...' 출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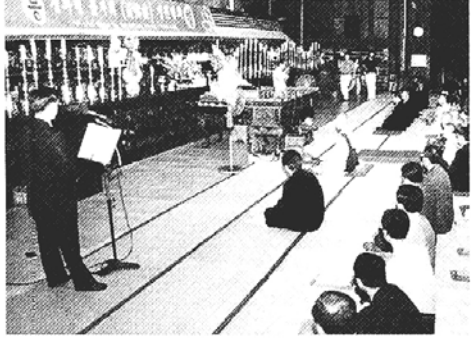
향운(香雲) 정태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의 논총집 《인도철학과 불교의 실천사상》 출판간담회가 15일 동국대 문화관 그늘에서 열렸다.

이날 출판간담회에는 원외법 동국대 명예교수를 비롯 법산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교수) 등 정박사의 지인(知人)과 제자 50여명이 참석, 논총집 출판을 축하했다.



### 김종표 사진이야기 '와우정사' 전

김종표 사진이야기 '와우정사'전이 13~16일 예총화랑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산크(Shashank) 주한 인도대사, 김해국 열반종 총무원장, 공종원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사진애호가, 불자들이 다녀갔다. 김종표씨는 "풍경소리의 단아함과 고요함, 넓고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와우정사를 통해 표현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제2기 청와대불자회 16일 개원법회가 16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 올내 사업계획 확정 3개 분과위원장 선임

불교언론인회 운영회의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16일 운영회의를 열고 올내 사업계획 수립과 각 분과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간담회 △원로스님 초청법회 △지도법사 위촉등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법보신문 사태 중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분과위원장에는 설의·홍보 분과위원장에 위영란 현대불교 취재부장, 조직분과위원장에 하춘생 주간불교차장, 사업분과위원장에 박찬 서울신문 문화부장을 선임했다.

한편 한국불교언론인회는 26일 열리는 부산·경남지부 결성 발기모임 지원책도 논의했다. 이영구 BBS국장과 부산일보 이진규위원이 주축이돼 준비중인 부산·경남지부는 불교언론인회 첫지부로서 10월경에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서울·광주불교산악회 도선사서 합동법회

200여명 화합한마당 행사

서울·광주 불교산악회는 13일 북한산 도선사 청담대 종사 사리탑에서 2백여명의 회원들이 참가, 합동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도선사 주지 동광스님은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가 불교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도법사스님을 모시고 신령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불교산악회, 서울불교산악회, 서울동부불교산악회, 서울북부불교산악회 등 4개 산악회 합동 산림법회는 도선사를 참배하고 용암문 북한산정을 거쳐 우이동까지 산행했으며 화합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서울·광주 불교산악회 합동산림법회가 13일 도선사에서 열렸다.

### "참선 생활화·불교권익 수호"

청와대불자회 16일 개원법회

청와대불자회(회장 김태동수석)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성초(진각종 총리원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 현근(조계사 주지) 지선(백양사 주지)스님과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박철원 자민련불자회장, 한영애국민회의 부총재, 추미애 조성준의원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김태동수석은 법어를 통해 "참나의 마음자리를 밝히는 참선수행을 생활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며 "潮海日花(참선의 바다는 한송이 꽃과 같다)"라는 취지를 청목회에 전달했다.

김태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기위해 열심히 정진하고 불교권익보호에 노력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불심경영으로 이룬 사회환원

MF의 거센 격랑에 경제와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법을 삶의 철학으로 격랑 앞에서도 더욱 고요하고 의연하게 정진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서춘석·중앙병원장) 회원들이다. 의사, 상공인 등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지만 매일 열리는 월례법회에서는 신본도 직업도 내려놓고 일심으로 부처님법에 귀의할 뿐이다.

부처님 법이 좋아 모인 1백8명의 실업인들은 91년 2월 불법홍포와 사회봉사를 위해 부산불교실업인회(초대회장 故김정태)를 태동시켰다. 그동안 자신들이 사회에서 얻은 기업이윤의 환원을 위해 부산불교방송 설립, 불교발전강연회 개최, 장학사업 등의 사업을 펼쳐왔으며 불교병원 설립이라는 커다란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병원은 앞으로 2~3년내에 부지와 병원 건립비용 등을 마련해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 병원을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는 자비실천의 장으로 꾸러갈 예정이다. 소외받은 불자들의 치료에서 장례절차까지 총망라한 병원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1백40여명으로 늘어난 회원들은 밖으로 내세우지 않고 불사에 동참하며 특히 어려운 사찰에 보시하기를 기뻐한다. 보시의 기쁨을



◇부산불교실업인회가 주최한 경제인초청강연회에는 지역 상공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배우고 마음을 비워가는 정진을 위해 월 1회 전국의 사찰 순례법회, 년 1회 출가 경험 수련법회 등을 반드시 가족동반으로 하고 있다. 가족동반 법회를 통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회원이 되고 또 며느리가 회원이 되는 등대를 잇는 회원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월례법회는 더욱 정겹고 따뜻하다. 가족전체가 일년이면 40여군데의 사찰을 다녀오

고 법문을 듣게 되는 이 월례법회나 장사를 모임을 될 것"이라고 보살행을 다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탐방 부산불교실업인회

의사·상공인등 회원 140명  
가족동반 월례법회 자랑  
장학사업·병원봉사 앞장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양성 교육 기관

##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제 10기 수강생 모집 -

21C 한국불교를 접어지고 갈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법회 지도교사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불교를 레크리에이션에 접목시켜 좀더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달해서 불교 포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교육을 개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 의 개 요**

1. 데 싱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레크리에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
2. 교육기간 : 1998년 9월 22일 (화) ~ 12월
3. 교육일시 : 매주 화, 목 오후 7시~9시, 매월 1회 토요일 특강
4. 교육장소 :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조계사 건너편)
5. 구비서류 : 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6. 개 강 일 : 1998년 9월 22일 (화) 오후 7시
7. 참 기 비 : 30만원 (교재비, 재료비, 실습비 포함)
8. 특 전 : ① 월요강좌 참석 ② 각종 이벤트 참가 ③ 2급 지도자 응시자격 부여(과정 60시간 이수자)
9. 교육내용 : - 불교 레크리에이션론 - 심성개발 program - 찬불가 - 음악(악보보기, 동요, 가요, 응용-서예) - 리더십 - 레크리에이션론 - 모임의 진행 - 프로그램의 작성 - 레크리에이션이벤트(레벤트) - 캠프 - 오리엔티어링 - 하이킹 - 만들기 - 게임 - 춤(민속춤, 레크리에이션 춤) - 지도자의 자세 - 전래놀이 - 종합실습
10. 문의 및 접수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사무국  
중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흥 B/D 202호  
☎ 02)738-7860, 730-7525 FAX 02)738-7863

▶ 온라인 접수 - 국민은행 023-21-0570-895 (예금주 인병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 설조스님에게 드리는 공개 요구서

1. 설조스님은 이중호적, 직무유기, 중단 미승인 재산 임대, 분담금 과도 체납(총 2,854,705,614원), 관람료 관련 비위(중단 승인없이 공동 예치금 인출 사용, 관람료 개인명의 통장에서 관리), 직무유기, 중단 미승인 재산임대 등의 건으로 98년 5월 22일 제15차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설조스님은 불국사 주지 소임 수행중 1996년 불국사 중앙중회위원 보궐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호법부에서 진상조사를 받던 중 스님 스스로 이중호적에 대한 사실을 인정 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총무원 총무부에서는 98년 2월 6일자 대불총총 제 77호, 3월 10일자 대불총총 제189호, 4월 3일자 대불총총 제265호를 통해, 설조스님 스스로 이중호적 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 드렸습니다.  
요청의 내용은 어머니 장탄순, 생년월일 1931년 12월 25일생, 전북 김제군 금산면 상용리 481번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위조된 호적을, 원호적인 아버지 이철길의 아들 이규성, 1942년 4월 2일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148번지로 바르게 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조된 호적에 의하면 설조스님은 만 6세에 사미계를 수계(1948년에 수계)한 것으로 되는 데, 이러한 사실을 중도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3. 하지만 설조스님은 불국사 주지로 제적중인 상태에서 이러한 거듭된 공문에 대해 일체의 회신은 물론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단 승적 업무를 혼란시키는 비양심적 행위일 뿐 아니라 중한 중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총무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회신이 없음에 따라 부득이 신문지상을 통해 공개 요구를 하니, 조속한 기일내에 이중호적과 이중승적에 대한 정정조치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회신해주기 바랍니다.

불기 2542(1998)년 9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